



Hello, I am Sister Andrew Mary Horvath. I was born November 4, 1938. I grew up in Pittsburgh, Pennsylvania. My grandparents came from Slovakia and my Dad was born in Slovakia. The hospital where I was born was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I have two brothers, Andrew who lives in Turtle Creek, Pennsylvania, and Stephen who is deceased. I went through Sacred Heart Grade and High School, and had a Sister of Charity in every grade. After graduation, I entered the

Community on September 8, 1956. I feel I have been part of the Community of Sisters of Charity all my life.

When I was a postulant, the group I entered with was assigned to teaching or to taking classes. My first assignment was to teach fourth grade at St. Stephen in Hazelwood, Pennsylvania. It was followed by working in many schools in Johnstown and Altoona. Later, I went to Phoenix, Arizona for five years. Then I returned to the Diocese of Greensburg. I told everyone I was working my way up Route 119, a well-traveled highway in Pennsylvania. I went from Scottdale to Mt. Pleasant to Youngwood, and finally to Greensburg. For twenty-two



years, I was a classroom teacher, and for fifteen as an elementary principal. I enjoyed working with the children of God. Their love for their faith, their hope and dreams for the future were inspiring and enriched my life in many ways.

After completing my time in Greensburg, I spent six months taking classes in Gerontology. I went to St. Mary of the Woods in Terre Haute, Indiana. Upon completion of the

studies, I was hired to be manager of Gilbert Straub, high rise for Senior citizens where I spent thirteen years. It had many challenges, but I received many blessings. At the time I retired I was called to our Motherhouse,

Caritas Christi. During my years in Community, I often thought of

helping and working with our Senior Sisters. I was asked to work in the Gift Shop. After several years in the Gift Shop, I also assumed the role of House Treasurer. It was as though God heard my wishes, and they were answered.

My life has become enriched in many ways as a Sister of Charity. I thank God for the blessings of all these years and believe that my years in ministry flowed from our motto, "Hazard Yet Forward."





안녕하세요! 앤드루 메리 호바스 Andrew Mary Horvath 수녀입니다. 저는 1938년 11월 4일에 태어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자랐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슬로바키아 출신이고 아버지 역시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났지요. 남동생 두 명이 있는데 앤드루 Andrew는 펜실베이니아주 터틀 크릭 Turtle Creek 에 살고 있고, 스티븐 Stephen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성심 Sacred Heart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우리 씨튼 수녀님들이 가르치셨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9월 8일에 입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평생을 사랑의 씨튼 수녀회와 함께한 것 같아요.

청원자 때 저희 그룹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하도록 파견 받았습니 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이즐우드 의 성 스테파노 St. Stephen 학교에 4학 년 교사로 첫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존스타운과 알투나의 여러 학교에 서 일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5년 동안 사도직을 하고 그린스 버그교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고속도로인 119번 도 로를 따라 올라가며 사도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 요. 스코트데일 Scottsdale



에서 마운트 플레젠트 Mt. Pleasant, 영우드 Youngwood를 거쳐 마침내 그린스버그로 가게 되었거든요. 25년

동안은 담임 교사로, 15년 동안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사도직 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 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열정과 희망, 미래에 대 한 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삶에 영감을 주었고 풍요롭 게 해 주었습니다.



그린스버그에서 사도직을 하고 나서는 6개월 동안 인디애 나주 테레호테 Terre Haute에 있는 세인트 메리 오브 우즈 대 학 St. Mary of the Woods에서 노인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마치면서 노인들을 위한 독립 생활시설인 길버트 스트라우브 Gilbert Straub의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일하면 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원 카리타스 크리스티로 왔습니다. 수도생활을 하면서 저는 노인 수녀님들을 돕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자 주 생각했어 요. 그런데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있는 선물 가게를

말아 일하도록 요청받았고, 몇 년

후에는 모원의 분원 회계도 맡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소망을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 신 것 같았어 요.



사랑의 수녀로서 제 삶은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도직 생활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라는 우리의 모토에서 비롯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제 삶에 내려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